

# 복구,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수상

## '도심에 녹색 더하는 복구형 희망 그린 뉴딜' 우수상 수상...재난관리시스템 등 가치 인정

광주 복구(구청장 문인)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1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후환경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

고 전국의 우수한 공약과 정책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실시된다.

올해 대회에서는 총 156개 기초지자체가 접수한 376개의 사례 중 최종 209개 사례가 본선 대회에서 경연을 펼쳤다.

복구는 '도심에 녹색을 더하는 복구형 희망 그린뉴딜' 사례로 우수상

을 수상하면서 3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특히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각종 자연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감소와 저탄소 설전을 위해 산업단지 친환경 제조혁신 및 마을 단위 친환경 에너지 확산 정책 등 탄소중립 도시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문인 복구구청장은 "그동안 도시재생, 안전자치에 이어 기후환경까지

3년 연속으로 구정 역점 분야의 성과를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43만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복구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지난 5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등급을 받으면서 주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김정관 기자

## 남구 덕남동에 '가족 힐링촌' 조성 사업비 10억 투입·내년 말까지 추진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덕남동에 자연생태 체험장과 캠핑장을 갖춘 대규모 가족 힐링촌이 들어선다.

남구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2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 공모에 선정돼 내년 연말까지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덕남동 일원에 2천평 규모의 가족 힐링촌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건강누리길 조성까지 환경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4번째 결실인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조성사업은 이 일대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해 사람과 환경, 테마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가족 힐링촌 출입구에는 샤워장과 취사장, 화장실을 비롯해 야외쉼터가 조성되며, 부대시설 인근에는 주차공간과 캠핑장 테크를 갖춘 제1캠핑구역이 만들어 질 계획이다.

제1캠핑구역의 지나고 난 뒤에는 나무 숲길을 따라 주차공간과 야영장, 산책로가 조성된 제2캠핑구역이 들어서며, 제2캠핑구역 뒤편에는 수목원과 자연생태 체험장 등 생태체험 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덕남마을 가족 힐링촌 시설물 관리를 위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할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특히 김병내 구청장은 관내 면적의 상당수가 그린벨트인 점을 주목,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매진해 지난 2019년 대공제 수변공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푸른 누리길, 향동제

광산구 '사장님 다시서기론' 조기 완료 165개 점포에 총 27억3천600만 원 지원

## 광산구 '사장님 다시서기론' 조기 완료 165개 점포에 총 27억3천600만 원 지원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특례보증 '사장님 다시서기론'이 조기 소진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광산구는 지난 3월 광주은행, 광주어룡신협,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산구 기업주치의센터와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섰다.

이 결과 총 165개 소상공인 점포에 27억3천600만 원의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점포당 평균 1천650만 원을 빌린 셈이다.

업종별로 지원 비중은 음식·숙박업 61건(36.9%), 도·소매 47건(28.4%), 기타 개인서비스 14건(8.4%), 교육서비스업 13건(7.8%) 등 순으로 나타났다.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광산구가 1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광주은행과 광주어룡신협도 각각 5천만 원씩 출연했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모인 출연금

의 12배를 대출 보증재원으로 운용했다. 광산구는 이와 함께 자체 구비로 1년 동안 2% 이자도 지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지역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줬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탁 기자

## 서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와 함께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도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에서 진행된 무상점검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차량 11대가 서비스 점검을 받았다. /동구 제공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실'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단속기준이 강화됐으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서구가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동구,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수리서비스 제공

이를 위해 사단법인 어린이 안전학교 소속의 안전지도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교통안전 표지판 익히기 ▲교통사고 예방법 ▲시정각 교육 등을 진행시킴으로써 어린이들이 조기에 스스로 안전한 교통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와 함께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및 수리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2008년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와 '장애인 차량 무상점검 및 수리 서비스 협약'을 맺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장애인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동안 240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도 한국폴리텍대학 광주캠퍼스에서 진행된 무상점검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차량 11대가 서비스 점검을 받았다.

엔진오일, 와이퍼, 윈도 브러시 점검과 부동액 및 에어컨 필터 교체 등 경정비를 마치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관리요령 및 안전교육

을 실시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장애인들에게 승용차는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생명과 직결된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수리 서비스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 2021년 완도 해양치유산업화 원년

해양치유, 깨끗한 해양환경과 다양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 치유하는 건강증진활동

해양치유산업 완도군이 선도합니다!